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나주역사 확 넓힌다

〈광주 송정~목포〉

중축 설계공모 ... 240억 들여 2018년 완공예정

장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선상연결 통로 갖춰

오는 2018년이면 나주 지역민과 혁신도시 직원들이 친환경·배리어 프리 설계가 반영된 역사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X가 지나가는 이 구간에 대한 고속선로 사업도 착수될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호남고속철

도 광주송정 이남 2단계 구간의 나주역사 증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나주역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의 고속화 추진과 함께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43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방식은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선상연결통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역사가 완공되면 기존 이용객뿐만 아니라 나주혁신도시 유입인구와 방문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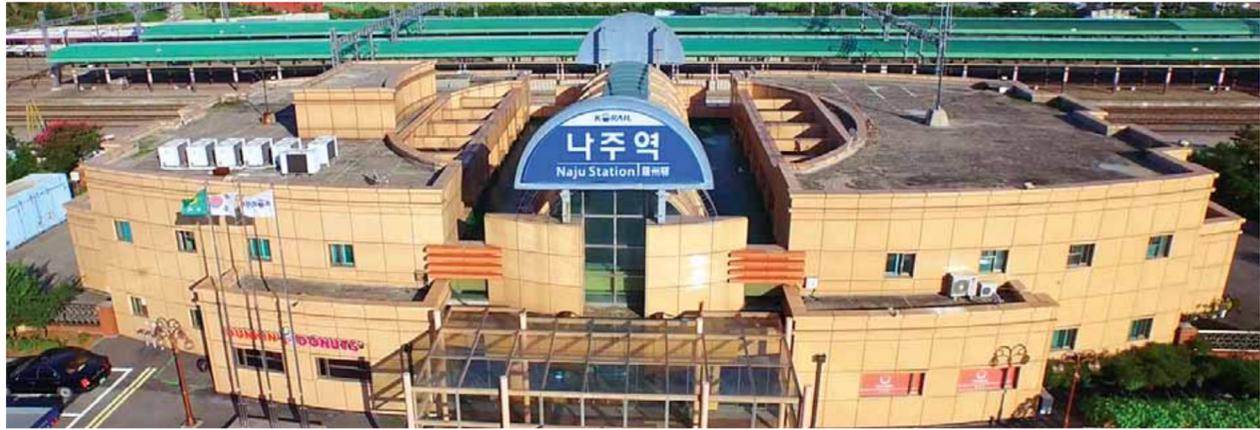
설계공모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누구나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3일 참가등록을 받은 뒤 3월 말에 작품을 접수한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해 2018년 12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신축역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

애물 없는 '배리어 프리' 설계를 반영하고, 최단거리 연계교통 환승시설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여객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지열) 설비 등 친환경 중심의 설계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나주는 예전부터 호남의 교통 중심지로 역사도 깊다"며 "설계공모에서 예술성과 기능성은 물론, 지역의 특색과 상징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는 나주역사 전경.

문흥동 옛 교도소 부지

광주시, 다시 개방 추진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8일 북구 문흥동 옛 교도소 부지를 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해 10월 교도소가 옮겨진 뒤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오섭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옛 교도소에는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청년의 조국사랑, 사형수의 마지막 회한 등 통탄의 세월이 남아있다"며 "법무부 땅이기 전에 시민의, 국민의 땅인 점을 인식해 부지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적지로서 상징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에 개방을 요청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우선 5·18 관련 단체 등으로 현장 조사 방문단을 구성해 오는 3~4월께 방문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 美 본토 타격 장거리 로켓 개발

사거리 1만3000km, 핵탄두 소형화도 ... 국방부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사거리를 확장하는 엔진 시험을 계속해 온 끝에 사거리 1만 3000여km 가량의 로켓 추진체를 개발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 1만3000여km는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며,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ICBM과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700km)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도 장착할 수 있게 돼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 기지, 괌과 앤더슨 기지, 남한까지도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KN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2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

해 실전 배치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스커드는 600여기, 노동 미사일은 200여기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1만3000여km의 장거리 로켓을 개발한 데 이어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가정 아래 '맞춤형 확장역제전략'과 '4D'(타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전략과 작전계획은 유사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지상기지에서 선제 타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경계심을 갖는 것은 ICBM이 발사된 이후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필요한 재진입체 기술과 탄두 보호 기술 확보 여부이다.

미사일이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 데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탄두가 고열에 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개발을 끝낸 KN-08을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군은 지난 6일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질타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동장리 발사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뒤흔치고 있다.

하루에 8시간가량 한반도 지역을 감시하는 미국의 첩보위성망을 따돌리려고 발사대를 비롯한 발사장과 철도로 연결된 동장리역에 가림막을 설치해냈다. 특히 발사장에 대형 조립동 건물을 건설했으며, 이 건물에서 발사대까지 2개의 레일을 깔아냈다. 조립동에서 로켓 추진체를 조립해 야간에 발사대에 장착하고 가림막으로 가려놓으면 미국의 첩보 위성을 따돌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김동찬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 5) 의원은 28일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청소년특화시설인 광주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개관과 함께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 위임 및 위·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 합리적 분쟁결기준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동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돼 오던 광주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심 "수석교사들 재심사 탈락은 교육청 폭거"

광주시의회 유정심(남구 2) 의원은 28일 광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의 자존심을 짓밟은 광주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은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며 "업무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받은 수석교사마저 탈락한 심사는 수석교사제를 없애기 위한 수순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신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초로 임용된 때(2012년)부터 4년이 경과하면 업무평가 등을 평가해 재임용하는 제도다. 그는 "시교육청이 중등 수석교사 14명에 대해 재심사를 했는데, 이중 9명이 탈락했다"며 "이들은 교육부에 교원소정심사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교육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수석교사제도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업시수를 50%로 줄이는

전남도 2025년까지 에너지기업 700개 유치

'에너지산업 육성' 토론회

전남도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사 CEO와 한국전력·전남도와 투자협약한 기업 대표 등을 초청, '전남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BCSD는 GS칼텍스, LG화학, 포스코 등 국내 49개 회원사가 가입한 경제인 단체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김명자 그린코리아21 포럼 이사장,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이상선 효성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손영기 GS EPS 사장,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경제조정관, 김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등 CEO와 관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성 50개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등 3개 분야로 추진해 2025년까지 에너지기업 70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CEO들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 참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계통망 확충, 정부의 지속적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입법조사처 오늘 광주서 '헌법개정'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시민 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

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찬표 목포대 교수, 조순일 순천대 교수, 최우용 등 이대 교수 등이 종합 토론에 참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6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

- 가격은 500만원대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선착순 중, 호수지정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아름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